

#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‘한마음 원팀코리아로 세계시장 도약’ 강조

- 30일 “제26회 토목의 날” 행사에서 유공자 시상·토목인 격려 -

□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0일(목) (사)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“제26회 토목의 날”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.

\* “토목의 날” 행사는 ‘98년부터 한양도성이 완성된 날(1398.3.30)을 기념일로 제정

○ 이번 행사에는 허준행 (사)대한토목학회장,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, 토목인, 업계 관계자 등 내·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.

□ 이 차관은 치사를 통해 “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토목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”를 전하고, “건설산업의 여건과 경쟁력 등을 냉철히 진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○ 특히, 2027년까지 연간 수주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건설시장 4강 도약을 목표로 방산, 원전, IT 등 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를 꾸러미로 묶은 원팀코리아 패키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면서,

○ 참석자들에게 기술인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수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혁신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.

□ 기념행사 후 진행된 건설정책포럼에서는 최동호 한양대(건설환경공학과) 교수가 좌장을 맡아 “건설기술인 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제안”을 주제로 학계·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.

2023. 3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